

LCD패널, 아시아 4강체제로 재편

중국, 2/4분기 얼 340만대로 일본 추월 ... 한국 점유율도 50% 아래로

중국이 대면적 TFT-LCD(박막 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 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완-일본의 3각축을 중심으로 구성된 LCD 시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4분기 중국의 월평균 LCD 생산량은 전체의 5.3%인 340만대로 일본 230만대(3.5%)를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증설된 LCD 신규세대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으로, 일본은 한국과 타이완에 이어 3위 자리를 지켜왔다.

1/4분기에는 일본의 월평균 패널 생산량이 320만대에 달한 반면, 중국은 270만대에 불과했다.

디스플레이서치는 한국은 2/4분기에도 시장의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이어가며 압도적 1위를 지켜내고, 타이완이 30%대 후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4분기 51.4%로 절반을 넘고 3/4분기 49.6%, 4/4분기 49.9%, 2012년 1/4분기 48.6% 등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타이완은 2/4분기 39.6%, 3/4분기 39.7%, 4/4분기 39.3%, 2012년 1/4분기 38.8%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플레이서치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LCD 시장점유율 3위 자리에 오르며, 세계 평판 패널 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일본은 6세대, 8세대, 10세대 라인을 가동하며 중국과 앞치락뒤치락 하지만 중국의 성장이 수요-공급 균형을 비롯해 패널 가격, 설비 로드맵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16>